

마귀를 죽이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나라는 의식이 되는 영적 무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갇혀있어

하늘나라가 회복되면?

“내 분향을 목적 삼고 한 잔미를 불러 보세 여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여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 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이 찬송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늘나라가 회복되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없는 거죠? 고난풍파가 일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이제그대로 오려면 맨 먼저 구세주가 오게 돼 있고 구세주가 와서 고난 풍파가 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 나가 제일 먼저 마귀 새끼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로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는 악한 것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괴롭고 고통을 이제 그대로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죽 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그대로 오늘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이 죽지 않는 학설을 이 사람이 논하죠?

그러므로 진짜 구세주인지, 진짜 생미 록본인지, 진짜 정도령인지 하는 것을 하 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마귀들 이 또한 의심을 하도록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고로 그리고로 확실한 증거, 너 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를 대고 있는 거죠?

구세주의 자격

이제그대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 을 해도 감나무 줄기에서 엄나무가 나온 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말이야, 가능한 말이 야? 불가능한데 현재 감나무 가지 사이에 서 엄나무가 나와서 18년 동안 자라고 있

는 것이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들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학문으로 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로 감나무에 서 감나무 가지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 지만 감나무에서 엄나무가 나온다는 것 은 참말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죠? 감나무 가지 사이에 흠이 많이 쌓여 서 거기에 엄나무 씨가 떨어져서 나는 건 몰라도 그 가지에서 직접 엄나무가 나왔 다면 도저히 이 세상 상식으로서 이해 가 안 가는 일이죠?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그러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진짜고, 이슬이 내린다고 해서 진짜고, 이제그대로 여러분들 양의 해 신미생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라고 하지만, 그러한 구세주의 증거가 여 러 가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 도 사실상 영생을 줘야 구세주고 마귀를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구세주지 마귀를 죽이는 무기가 없으면 그게 구세 주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의 의식이 마귀면 내 마음이 마귀이고로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마귀를 죽이는 거죠? 그 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 면 마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이 밀실 안에 처음에 들어가니 까 이제그대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 돌아보는 음란죄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가족을 생각하는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참견하면 참 견하는 음란죄라고 하고 세상을 생각하



구세주 조희성님

면 세상을 생각하는 음란죄라고 하니깐 나라의 의식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야, 못 하도록 하는 거야? 못 하도록 하는 거 예요, 아시겠어요? 밀실 식구들이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긴자가 되는 거 죠? 이제그대로 나라의 의식 자체가 죄요 나라의 의식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으며 해와 이긴자께서 나라 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의 의식이 죄라는 걸 말을 했다고 했어, 말을 안 했다고 했 어? 말을 안 했다고 했죠? 이제그대로 내 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도 좋아하는 음란죄라고 하 면 내 생각이 다 죄야, 죄 아니야? 내 생각

은 전부가 죄야, 아시겠어요?

죄의 정의도 모르는 건 종교가 아니에 요, 죄의 정의도 모르면 이제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로 진짜 정확한 구세주가 틀림없 는 것은 뭘 봐서 알 수가 있느냐면 이제 그대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걸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선악과 자체가 나라의 의식이요, 나라의 의식이 마귀요 나라의 의식이 원 죄요, 유전죄요, 자범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했어, 안 논했어?

나라는 의식이 영적 무덤

이것을 옛날 전도관에서 들어봤어요? 둘째 울타리가 되는 밀실 안에서 이 말 을 들어보지 못했어,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셋째 울타리가 되는 일곱 번째 인 을 떼는 자, 이 세상 만민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둘째 아담이러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고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덮어 놔던 가려져있던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보아 진짜 구세주야, 가짜 구세주야? 진짜 구세주야, 아시겠어요?

이제그대로 나라의 의식이 죄요 나라 는 의식이 마귀요, 나라의 의식이 영적 무덤이고로 영적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영이, 아기보와 같은 영적 무덤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고 하나님 영이 나라의 의식이 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가도 되지만 부활함을 입었 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밀실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전도관에선 말할 것도 없고, 세 째 울타리에 들어와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셋째 울타리에 들어가야 왕의 반열에 서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초 창기에 영모님이 말씀했으며 소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역 설했던 것은 셋째 울타리가 둘째 아담, 셋 째 울타리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자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자가 이제그대로 셋째 울타리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둘째 아담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첫 째 아담은 생령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 는 영'이라고 쓰여 있죠? 살리는 영이 구 세주의 영이야, 살리는 영이 죽음의 영이

야? 구세주 영이야, 아시겠어요?

죄의 정의

이제그대로 두 번째 아담이 셋째 울타 리요, 셋째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비로소 둘째 울타리나 셋째 울타리에서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의식이 선악과요, 나라의 의식이 죄요, 나라의 의식이 마귀 라는 엄청난 사실, 6000년 동안 마귀의 정 체를 가려놔던 것을 드러내는 걸 보아 마 귀 대장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주인공이 야, 살려주는 주인공이야? 없애주는 주인 공이죠? 없애주는 주인공이 아니고서는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옛날에 이제그대로 영모님께서는 피 속에 죄가 있다는 말만했지 죄의 정의를 꼭 집어서 나라의 의식이라는 걸 말을 해 봤어요? 못 해본 거야, 아시겠어요? 다섯 째 인을 떼는 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가지고 알 수가 없 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그대로 마귀의 정 체를 알 수 있도록 성장해가지고 완성이 된 하나님의 영이러야 이제그대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그때서야 죄의 정의를 알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면 사망 권세, 사망의 영의 근본을 알아야 이제그 대로 "자기지적이면 필승"이라는 손자의 말대로 이제그대로 적을 알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적을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젠 만고의 천리요, 진리 중의 진리예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서 는 영생을 줄 수 없어, 아시겠어요?*

1992년 9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아담의 하나님》 (14) 베옷을 입고 곡하는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유다

(지나호에 이어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며, 어찌하여 양 팔이 결박당한 채로 구덩이에 갇혔느냐? 구덩이 속에 물이 고여 있지 않았기 망정이지 물이 있었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으리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아들 요셉입니다. 첩의 아들들이 저를 시기하여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요셉은 방금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있었는가? 참으로 반갑군. 내 주인의 조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살리셨구나! 자, 우리와 함께 애굽으로 가자.”라고 나이 많은 아라비아 상인이 말했습니다.

(14) 베옷을 입고 곡하는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유다

밤은 깊었지만, 보름달이 중천에 떠서 주위를 대낮같이 밝히고 있는 가운데, 르우벤은 레아에 속한 종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는 도단 들판으로 돌아가자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은 첩의 자식들이 양 떼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 묻은 요셉의 걸옷을 발견했다는 것도 이상하였고 또 조금 전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 요셉은 온전히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이 번잡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떼가 있는 도단 들판으로 가던 도중에 르우벤이 “잠시 불임을 보고 뒤따라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눈여겨보아 둔 구덩이로 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울고는 동생들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야?”

창세기 37장

《3장 아담의 하나님》



아담이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통곡하다(창37:34) https://slidetodoc.com/first-reading-joel-2-12-18-even-now/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유다는 만형 르우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낯선 광야에서 요셉을 빼앗긴 구덩이를 찾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단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안심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애굽으로 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기타아르바(헤브론)의 마르세로 돌아온 아담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그 옷을 보고 귀여운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고 몹시 슬퍼하면서 “이제 내 귀여운 요셉이 죽었으니, 두 번 다시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탄만 하였습니다. 슬피 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위로했으나 아담은 베옷을 입고 새끼줄로 허리를 동어매고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요셉아!” 하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1 한민족과 유대인이 한부리라는 주장의 근거는 참 많다.

첫 번째로 가장 보수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양식이 똑같다는 사실은 같은 민족임을 말한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나 중부 일부에 사는 일부 종족들은 아직도 돌담으로 지은 집에 살며, 제사를 지낼 때에 마찬가지로 돌제단을 쌓는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단(壇)을 쌓았으며(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 방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 우리와 더욱 흡사하다. 가령,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베로건을 만들어 쓴 뒤, 향을 피우며 대나무를 찢고 곡을 한다든가(창 37:34)·(역상 21:16), 곡을 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라고 한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인류사를 통틀어 사람이 죽었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첩의 자식 유다는 요셉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식으로 날마다 탄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달력 겁이 났습니다. ‘혹시 형제를 가운데 누군가가 요셉을 죽이는데 자기 자신이 앞장섰다는 것을 아버지께 고백한다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형 르우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들람 성읍에서 만났던 여인을

을 때, 베옷 입고 곡을 하는 민족은 오직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두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농경법과 농구(보습, 쟁기, 도리깨 등)로 농사지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부삽, 불집계, 손가락, 낫그릇을 사용하여(열하25:14) 매운 음식과 부추 그리고 아주 깊고 맑은 물에만 사는 향어(일명 이스라엘 잉어) 등을 즐겨 먹었다.

게다가 동짓날만 되면 우리 조상들은 팔죽을 만들어 각 방의 문설주를 비롯하여 장독과 헛간 등에 뿌리고 했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12:21~30)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고 그렇지 않은 애굽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선 양의 피를 바른 ‘사자(死者) 귀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났고, 그 후로 한반도까지 건너온 이스라엘 단지파의 자손들에게도 이 관습이 그대로 남아 동짓날 팔죽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옷 입은 상주

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고 거기서 살립니다. 제가 떠난 후에 르우벤 형님이 아버지를 만나거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유다가 말하고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떠납니다.”

아버지 아담이 모르게 집을 떠나는 유다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람 성읍에 나의 신붓감으로 보아 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얼마간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레아는 아들 유다에게 자신에게 속한 종들과 낙타 열 마리와 스무 마리의 양과 스무 마리의 염소 그리고 결혼지참금이 되는 예물을 잔뜩 주었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안젤라